

이달의 초점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취약성과 조사체계 개선

|곽윤경|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 건강 현황

|최지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전진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리와 헬스리터러시

|박은자·이홍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기획의 글 (Foreword)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00년 이후 국내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3년 기준 여성 결혼이민자는 14만 369명으로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로 이주한 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이 변화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의사소통 문제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5년 6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통계와 작년에 전국적으로 수행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찰하고, 건강 수준을 주관적 건강 수준, 정신건강, 건강관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건강 현황과 함께 사회경제적 위치, 헬스 리터러시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건강 수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사례 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찰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사회 다양한 인구 집단의 건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수탁 과제로 실시된 ‘결혼이주여성 건강 조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및 예비 연구(2024ER060100)’의 일환으로 결혼이주여성 건강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결혼이주 여성의 전반적 건강 수준을 조사하고 주요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여성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전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하기에 앞서 주요 출신국가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 건강 연구에 대한 스코핑 리뷰, 국내외 관련 조사 고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설문지 및 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건강 수준, 생식건강, 정신건강, 건강행태, 의료이용,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 설문지 외 중국어·베트남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국문 설문지의 외국어 번역과 한국어로의 역번역, 이중언어 사용자의 검토, 결혼이주여성 인지 면담 과정을 거쳤다.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거주 지역과 연령별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층화하여 표본 목표 수를 할당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온라인 조사 시스템 접속 큐알(QR) 코드와 사이트 주소를 전달하여 응답자가 큐알(QR) 코드와 사이트 주소를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서 한국어 설문지, 중국어 설문지, 베트남어 설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다. 2024년 9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519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홈페이지 보건 의료 연구성과물 아카이브(<https://library.nih.go.kr>)에서 볼 수 있다.